

기획특집

제주의 문화가치 확립방안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허남춘

제주 인문학은 근대를 시정할 다양한 발상과 창조력과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서울은 세계화에 몰두하여 자신을 돌볼 겨를이 없지만, 제주도는 근대화의 영향을 덜 받고 전통의 요소를 잘 지켰기 때문이다. 고대적 중세적 사유와 삶의 방식을 온전히 지켰기 때문에 근대를 뛰어넘을 인간의 중요한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의 땅이고 위대한 터전이다

1. 들어가며

성인군자가 세상을 다스리던 세상은 끝난 지 오래다. 인격수양을 하고 학문을 연마한 후 정치적 지도자가 되는 세상이 아니다. 정치는 정치를 업으로 삼는 직업인이 하게 되었다. 혹은 법을 잘 아는 변호사 출신들이 전업하는 곳이 정치판이다. 일부 교수 출신들도 정치판에 열심거리긴 하지만, 크게 성공하지 못했다. 학자들이 정부의 공직을 맡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어서 이 세상이 해결될 일이 아니다. 학자들은 학문 연구에 열중하면 된다. 학자들은 학생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것을 업으로 삼고, 정치인이 정치를 해야 세상이 잘 돌아간다. 역할분담을 하되 서로 협업해야 한다. 정치는 학문에서 제공하는 능력을 받아들여 활용해야 한다.

정세를 판단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지혜를 학문에서 공급받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 학문의 성과를 정치와 행정 등 여러 분야에서

적극 활용하는 사회라야 앞서 간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분야에서 학문적 조언이 이루어져야 하고 정치인은 그것을 잘 수용하면 된다. 돈이 되는 일에 앞장서기 위해 정치와 경제 전문가를 활용하는 것은 널리 행해지고 있다. 사회 구성원의 복지와 관계를 중시하는 점도 정치인의 미덕이 되었다. 그런데 아직 실행되지 못하는 면이 있다면 바로 문화 영역에서의 조언을 듣지 않는다는 점이다. 전국이 그렇고 제주도도 심각한 편이다.

특히 제주도는 정치와 경제 측면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뒤떨어지지만 문화 부문만은 다른 지역을 앞서가는데도 문화 역량을 갖추는 데 미진하다.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내다버린 전통을 다시 주워다 문화산업을 하겠다고 안간힘을 쓰는데, 제주에는 아직 전통문화가 생생하게 살아 있음에도 방치하고 무엇을 할지 모르고 있다. 그 사이 제주의 신화가 서울로 팔려가 문화상품이 되어도 수수방관이다. 제주의 자청비가 국순당이란 술집으로 팔려나가도 되찾아올 생각을 못하고 있다. 문화가 밥 먹여주는 세상이 오고 있는데, 제주도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제주도가 제주도 문화의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 제주도 역사를 되찾고 복원해야 한다. 한국 속에 제주는 없었다. 근대국가는 제주라는 지역을 변방으로 취급했다. 오죽하면 교과서에서도 고대국가 탐라국의 실체조차 인정하지 않는데 그 어떤 항변도 하지 못하였다. 외면과 무시와 묵살 속에서 관광지로 만족하고 있는 게 제주 아닌가. 이제 제주라는 지역부터 들여다보아야 옳다. 지역학과 문화를 이야기하는 학자의 말에 귀 기울이길 바란다.

2. 제주학과 공동체문화

모든 지역문화는 해방 후 근대사 70 여 년 동안 국가 획일주의의 횡포 앞에서 거의 파괴되거나 상처 입고, 그 언어조차 실종의 위기에 처해 있다. 이제 지역민들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발견하여 지방에서 사는 보람을 찾을 시기가 왔다. 그래서 지역주의에 의한 문화자치와 문화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문화의 자립화, 자치화, 특성화, 재창조, 민주화, 독립화, 연대화 정책’을 기조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제주에는 제주문화를 정립하기 위해 제주어로 소설과 시를 쓰고, 제주어로 방송을 해야 하고, 타자의 용어인 제주를 버리고 ‘탐라’를 회복해야 한다. 이런 의식이 선행돼야 진정한 제주문화 가치의 확립 방안도 가능할 것이다.

제주학은 인문·사회·자연 학문 모든 분야에 걸쳐 분포하고 있다. 그런데 특별히 제주학의 개념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인문학으로서의 제주학을 말한다. 제주라는 지역을 대상으로 삼아 물질적인 것이 아닌 정신적인 가치를 가늠하는 학문 분야라 하겠다. 제주의 역사와 철학과 문학과 문화·예술을 관통하는 제주의 정신을 찾아내고, 물질주의로 파탄에 직면한 삶을 구원하는 방식이 제주 인문학의 발견이다.

21세기는 물질의 풍요가 정신의 파탄을 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역사의 종언이나 문명의 재기 불가능성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는 불행을 넘어서서 바람직한 가치를 추구하려는 이상이나 소망을 소중하게 여겨야 할 때이다. 이치를 따지고 가치를 존중하는 학문인 인문학의 전통을 되살려야 한다. 인문학의 발상과 창조력이 새로운 경쟁력으로 평가되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근대의 잘못을 시정하고 탈근대의 길을 찾게 하는 것이 인문학이다. 인문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서구적 근대를 반성하고 민족적 역량을 간직한 전통에서 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자본-테크놀로지에 대한 비판적 성찰 위에서 현재의 인간을 구속하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고 자유를 모색하는 것이야말로 인문학의 흔들릴 수 없는 성립 요건이다. 여기에 미래에 대한 낙관도 보태져야 한다.

제주 인문학은 근대를 시정할 다양한 발상과 창조력과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서울은 세계화에 몰두하여 자신을 돌볼 겨를이 없지만, 제주도는 근대화의 영향을 덜 받고 전통의 요소를 잘 지켰기 때문이다. 고대적 중세적 사유와 삶의 방식을 온전히 지켰기 때문에 근대를 뛰어넘을 인간의 중요한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의 땅이고 위대한 터전이다. 특히 우리가 지녔던 인간적 공동체성을 잘 간직하고 있어 희망의 불씨를 살릴 수 있다.

미국 시카고 박물관에는 다음의 글이 써 있다고 한다. “나는 존재한다. 그런데 나는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 데카르트가 ‘나의 존재’를 부르짖으며 개인의 발견을 근대의 미덕으로 삼게 되었고 근대는 개인의 욕망을 한껏 부풀렸다. 그 결과는 어떤가. ‘나’는 존재할지라도 ‘우리’는 실종되지 않았던가. 우리 마을, 우리 지역, 우리 모두는 실종되고 격차는 더욱 커졌지만 치유되지 않고 있다. 이제 다시 ‘우리’를 회복해야 한다. 제주는 그런 공동체 문화가 가장 잘 보존되어 있어 가능성의 땅이다. 이 공동체 문화는 어떻게 지켜져 왔는가. 바로 제주의 마을 신앙과 더불어 이야기와 민요와 민속이 지켜질 수 있었다. 수천 년 내려온 신앙공동체가 우리를 지켜내면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에워싸고 있는 자연을 살려 왔다. 인간과 자연이 함께 중시되는 미래지향적 가치가 바로 제주의 오래된 과거 속에 있다.

3. 마을 신앙과 전통예술

제주는 기록문학이 빈약한 대신 구비문학이 풍부한 땅이다. 민요·설화·무가는 가히 한국의 중심부라 할 만하다. 그런데 무가(巫歌)는 문학적으로 논의할 만한가. 그것들은 지금에도 가치가 남아 있는 것인가. 무가가 무속(巫俗) 혹은 무교(巫敎)의 종교적 논리나 규범을 담고 있는 것만은 아니고,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인간의 보편적 삶을 담고 있음을 부인하진 못 한다. 무속은 고대국가가 발생하기 이전의 원시사회로부터 부족 공동체 사회의 중심 이념이었고, 고대국가가 건설된 이후 천신사상(天神思想)에 밀려 주변 이념으로 떨어져 나가 민간신앙의 주된 장이 되고, 불교와 유교의 중세적 사상이 밀려온 후에도 민중의 애호 속에서 지속된다. 서구적 근대성이 우리를 침범한 이후 무속은 미신으로 전락하여 비합리의 대명사가 되고 말았지만, 무속의 의의와 가치를 무화시키는 근대의 독선을 무조건 신봉하던 삶에 대해 반성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속에 인간의 삶이 어떻게 규정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무가의 가치를 새로이 인정하게 되었다.

앞으로 제주도 무속을 입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연구 성과들을 바탕으로 현재까지 지속되는 무속신앙의 모습에 대한 섬세한 고찰이 필요하다. 마을마다 이루어지고 있는 당굿 등에 대한 기록과 분석, 제주도 ‘큰굿’의 구조와 역할에 대한 실질적 분석, 가정신앙과 조상굿 등에 대한 조사, 심방의 생애와 학습과정 등등 연구 주제는 실로 아직도 풍부하다. 또한 그동안 미처 다루지 못했던 분야(무구, 연물, 춤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들도 필요하며, 생업활동과 긴밀한 관련을 가지는 무속신앙에 대한 면밀한 조사 역시 요구되고 있다. 게다가 동시에 사진이나 영상자료 등 관련 기록물의 축적도 필요한 일이다.

제주문화 보존과 계승 전략을 잘 세워야 한다. 안동에 갔더니 ‘헛제사밥’이 관광객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안동이라 하면 유교의 본거지이고, 유교식 제사가 잘 보존되고 있고, 당연히 제사와 관련된 의례도 귀한 가치를 지닌 곳이다. 그 의례 음식을 대중적 입맛에 맞추어 바꾸어 상품으로 내놓은 것이 헛제사밥이다. 제주의 굿도 굿 나름으로 잘 지켜나감과 동시에 대중적인 입맛을 위해 변용을 시켜야 한다. 굿의 노래와 이야기와 춤과 놀이를 대중적으로 변용시켜 관객을 위한 공연거리로 만들어내야 한다. 굿이 미신이 아니라 삶과 관련된 노래이고 사람끼리 어울려 사는 이야기이고, 억눌린 감정을 풀어내는 신명풀이의 놀이란 점을 뚜렷하게 보여주어야 할 때다. 변용해야 제주 굿이 살아난다. 제주 굿이 살아나야 제주의 볼거리와 놀거리가 풍부해지고 제주 땅이 신명

으로 들쭉거릴 수 있다.

곳과 관련된 이야기(신화), 노래, 춤, 놀이를 무당(심방)도 전통대로 지켜나가야 하지만, 그 예술적 특성을 계승할 후속세대가 필요하다. 제주 음악, 미술, 공예, 건축을 가르칠 전통예술대학이 필요하다. 노래와 춤과 이야기를 가르칠 공간이 필요하다. 제주의 무형 문화를 가르칠 공간을 제주대학에 두어야 한다. 제주도와 제주대가 합동으로 전통계승에 앞장서야 한다. 사회인 교육을 감당하는 평생교육원처럼 대학과 지방정부가 함께 제주전통예술을 가르칠 교육원을 발족시켜야 한다. 대학 교수들이 이론을, 지역 심방들과 무형문화 전수자들이 실기를 가르치는 공동 작업이 필요하다.

4. 신화와 스토리텔링

제주는 이야기가 풍부한 땅으로 '신화의 섬'이라 일컬을 수 있고 기록신화로 그리스·로마가 세계의 중심이라면 구비신화로 제주가 세계의 중심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신화를 살려내자는 구호만 있고 구체적 방안은 없다. 지금도 심방들에 의해 불리는 살아 있는 신화가 이처럼 풍부한 곳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그리스와 로마 신화는 책 속에만 있다. 그러나 제주 신화는 현장에 살아 있다. 그 신화를 믿고 현실 속에서 이야기와 함께 살아가는 제주도는 사람과 자연 모두가 신성하다. 제주는 세계 신화의 수도이다.

제주에는 천지가 만들어지는 창세신화가 있는데 '천지왕본풀이'라 한다. 천지왕이 지상의 총맹부인과 결합하여 대별왕과 소별왕을 낳는데, 아버지는 금세 떠나버리고 아이들은 성장하여 아버지를 찾아 나선다. 박씨를 심어 그 넝쿨이 하늘에 가 닿자 그 줄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이야기다. 우리는 어렸을 적부터 <재크와 콩나무> 이야기는 잘 알고 있지만 우리의 <천지왕본풀이>는 모른다. 자기 것은 잘 모르고 남의 것만 아는 우스운 세상이었다. 이제 제주 신화를 가르치고 하늘과 땅의 소통이 지닌 의미를 통해 세상 사람들을 일깨워야 한다. 해와 달이 둘이었는데 해와 달을 하나로 만든 이야기에서 지구의 역사와 인간의 경험을 배워야 한다. 제주 신화에는 우주가 담겨 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제주 신화를 세계에 널리 알려 나가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선 심방의 이야기를 잘 채록하고, 연구해야 한다. 같은 제목의 이야기라 하더라도 조금씩 이본에 따라 내용이 다르다. 그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공통의 내용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충실하게 연구

해야 한다. 그 속에 담긴 인류의 지혜 -과학과 철학-을 발견해야 한다. 그 속에 담긴 원시적 고대적 사유체계를 밝혀 인간의 삶의 궤적을 밝혀야 한다. 제주 신화가 그런 신비를 감추고 있다. 이 연구를 위해 <제주학연구센터>에는 많은 제주학 연구자가 양성되고, 거기서 밥을 먹을 수 있어야 한다. 세계에서 신화 연구를 하려면 제주를 찾아오도록 해야 한다.

그 다음 다양한 버전의 이야기를 통합하여 정전(正典, canon)을 선정해야 한다. 그리고 그 정전을 토대로 유아용, 어린이용, 중고생용, 일반용 이야기가 새로 씌어져야 한다. 또 많은 언어로 번역되어 세계에 배포돼야 한다. 그런 절차를 위해서 신화 작가와 번역가를 많이 키우고 밥을 먹여야 한다. 연구자와 작가가 많아야 그때 제주 신화가 세상에 알려지게 된다. 다음으로 이 이야기를 원천으로 삼아 다양한 스토리텔링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의 원천으로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영화, 드라마에 대응할 수 있는 한샘못씀(one source multi use)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역시 스토리텔링 작가가 양성되어야 한다.

좋은 일자리를 제주도가 만들고 그 열매를 후손들이 따 먹을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제주는 자연도 아름답고 문화유산도 풍부한데, 특히 신화가 탄생하여 살아 있는 섬으로의 이미지를 만들어야 한다

5. 제주음식문화 살리기

제주는 지역의 풍토, 자연조건, 관습, 종교에 기인하여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제주 지역의 음식도 나름의 독자적 음식문화를 구축하고 있다. 최근에는 웰빙 바람을 타고 유기농, 천연재료, 건강 식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런 점에서 제주는 매력적이다. 2차산업이 빈약한 산업구조 덕분에 청정지역으로 남아 있고 제주의 농수산물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제주만의 흑돼지, 말고기 육류가 있고, 전복, 옥돔, 자리돔 등의 어류가 있고, 뽕(모자반), 톨(툇) 등의 해초류가 있고, 물화와 같은 독특한 요리법도 관광객의 관심을 끈다.

제주의 음식은 생태적 먹을거리이며 웰빙음식이며 육지와 변별되는 독자적 음식문화를 지니고 있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제주 음식이 웰빙이라는 이름의 사치로 변질될 수도 있다. 유기농 야채가 일반 야채보다 비싼 값에 팔리고, 결국 부자들의 먹을거리로 전락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웰빙(well-being)의 기본적 정신은 '잘사는(부자로 사는) 행복한 삶'이 아니라 '잘 사는'(인간답게 제대로 사는) 삶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웰빙 대신 굿빙

(good-being)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현대의 가공식품과 패스트푸드 음식문화가 낳는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슬로푸드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전통적인 조리법을 중시하고 친환경적 먹을거리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웰빙 혹은 굿빙의 한 방식이라 하겠다. 느낌은 단순히 빨리의 반대가 아니다. 환경, 자연, 시간, 계절과 우리 자신을 존중하면서 느긋하게 사는 것(파올로 사투르니)이고, 이렇게 느리게 사는 법을 현대 도시적 삶에 적용시켜 '슬로시티'운동이 전개되었다. 제주가 지향해야 하는 '웰빙 음식문화'와 '생태체험'은 이 슬로시티운동과 맥이 통하고 있다.

제주의 음식문화 운동은 슬로시티운동과 차별성을 두어야 한다. 제주의 특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스토리텔링이 담긴 음식기행과 생태체험을 결합하면 좋겠다. 즉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제주의 역사·신화·민속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제주의 자연과 제주의 전통문화와 제주의 삶이 동화되는 프로그램을 구현하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되는 체험을 지향해야 한다. 이것은 오감의 발견이고 해방이다. 상품미학, 가상공간, 교환가치에 의한 현대문명은 그 한계를 노정시키고 있는데, 그 허위의식을 고발하여 소외되고 분열된 우리의 정서를 해방시킬 수 있는 미적 관점이 필요하다. 오감의 발견은 우리의 미적 관점을 가능케 한다. 오감에 충실한 생태적 삶은 인간을 풍요롭고 충실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다.

제주의 특별한 음식은 죽·떡·국이 있다. 죽과 떡은 쌀이 아닌 잡곡으로 만든다. 애초 제주에는 쌀이 귀했기 때문에 조나 수수나 메밀떡이 널리 쓰였다. 그리고 전복이나 문어 등 해물을 넣은 죽과 콩죽이 유명했다. 이것들이 이제는 웰빙 식품이 되었다. 가난 때문에 선택한 음식인데 이제는 건강을 위해 널리 보급될 만한 음식이 되었다. 옥돔미역국이나 갈치국처럼 싱싱한 해산물을 이용한 국도 중요하지만, 자리물회와 같은 물회가 미래지향적 식품이다. 간단한 조리법도 중요하고 밥과 국만으로 한 끼를 구성하는 간결성도 매우 중요하다. 많은 반찬을 차리고 손이 가지 않은 것들을 마구 버리게 되는 한정식류의 폐단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단품식품이야말로 미래지향적이고 제주의 대표적 관광상품으로 개발해 나가야 한다.

제주의 일상식 조리법을 상품화하는 정황을 두고 말한다면, 가짓수가 많지 않은 것에서 다양한 음식을 개발하는 것으로, 꾸밈새가 단순한 것에서 꾸밈새를 화려하게 하고 음식 테코레이션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조리시간이 길지 않은 것에서 우러난 맛을 지향하는 쪽으로, 여러 가지 양념을 쓰지 않는 것에서 갖은 양념을 하는 것으로 변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21세기 우리 일상

의 음식문화는 간단하고 단순하고 자연의 맛을 느끼는 것으로 다시 변모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과소비, 지나친 소요 시간, 겉멋만을 추구하는 경박성, 인공미를 벗어나 간결미와 자연미를 추구하는 쪽으로 음식문화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명제가 놓여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제주의 일상식 문화는 ‘오래된 미래’이다.

제주의 무속 제사에는 떡을 고일 때 해와 달과 별을 차례로 올린다. 이런 풍속은 유교식 제사로 옮겨와 지금도 전승되고 있다. 제사나 명절에 쓰는 떡에는 우주가 담겨 있다. 절벤은 동그락 곤떡이라 하는데 해(日)를 상징하고, 솔벤은 ㉸반착떡이라 하는데 달(月)을 상징하고, 우 짝은 지름떡이라 하는데 별(星)을 상징하고, 전은 구름(雲)을 상징한다. 제펜(시루떡)은 땅(地)을, 은절미(인절미)는 밭(田)을 상징한다고 하여, 제펜 위에 은절미를 놓고, 그 위에 절벤-솔벤-우 짝 순으로 떡을 고인다.

땅으로부터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순서대로 진설하여 우주를 형상화하고 있으니, 제주의 의례음식에 담긴 세계관을 알 수 있다. 제사를 드리는 일이 바로 우주의 정연한 배열과 조화를 구축하여 인간세계의 질서와 평온을 기원하는 일이 된다. 음식이라는 것이 우주의 기운으로 탄생하였고, 각각의 우주를 상징하는 음식을 먹음으로써 소우주인 몸의 기운을 복돋는 과정임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기도 한다. 제주의 음식은 천지와 일월이 탄생하던 당시의 우주의 질서를 담아내려 하고, 자연의 순행으로 땅에 질서와 풍요가 도래하길 바라는 고대적 심성을 담고 있으며, 오래된 과학과 철학을 담고 있다. 음식 속에 이런 우주와 철학을 보여주는 경우가 또 어디 있던가. 이런 음식과 관련된 이야기 속에 담아 대표적 음식을 꾸준히 개발해 나간다면 제주 음식은 큰 반향을 일으킬 것이다.

6. 이야기·음식을 활용한 지역축제

제주의 지역축제 중 음식축제는 여럿 있다. 그러나 ‘이야기’를 중심에 두고 기획된 축제는 거의 없다. 제주는 음식과 이야기를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한다.

제주의 전통음식은 가공식품이 먹을거리의 70% 수준인 현실에서 천연식품의 중요성을 깨닫게 한다. 웰빙식품인 제주 음식과 다양하고 풍부한 신화를 결합하는 방식을 택해, 제주는 축제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1) 도새기(돼지)·제주마·감귤·고사리·자리돔·방어 음식축제

음식에 스토리텔링을 결합하여 새로운 음식문화를 창출하고, 문화콘텐츠를 활용하여 축제를 활성화하려는 시도다. 제주의 대표적 축제의 하나가 들불축제다. 들불농기란 밭과 목초지의 병충해를 방지하려는 제주 민속문화이고, 들불축제는 이를 바탕으로 시작되었다. 대규모 불꽃놀이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만 들불과 연관된 것은 별로 없고 백화점식 나열에 그치고 있다. 우리는 여기에 '불'과 관련된 스토리텔링을 하고자 한다. 제주에는 영감신이란 불의 신이 있다. 이 신의 존재를 바탕으로 하여, 불의 신인 영감신이 진노하여 생업에 위협을 받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인간의 노력과 정성이 보태져 신이 진노를 풀고 풍요를 준다는 스토리텔링을 구상하여 축제 전반을 구성하고자 한다. 그리고 불과 연관된 민속, 특히 쇠를 녹여 농기구를 만드는 '떡수리 불미민속' 등을 가미하고, 불에 구워먹는 화식(火食) 체험을 덧붙인다면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계승하는 교육적 효과까지 가능하다. '들불'의 '들'에도 문제의식을 갖고, 들에 나갈 때 제주인의 도시락인 '차룅' 음식을 소개하고, 들에 나갈 때 휴대한 '강술'이란 술도 체험하게 한다면 축제는 다양해질 것이다. '강술'은 세계 유일의 고체 술이다. 발효된 가루를 휴대하여 가져갔다가 이 가루를 물에 타면 술이 되는데, 이런 전통은 제주에만 있는 것이고, 최근 독일에서 고체 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을 정도다. 잘 알려지지 않은 음식을 축제에 활용한다면 축제는 자기만의 특색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2) 제주의 대표적 음식, 돼지고기

최근 우리 사회는 쇠고기 수입문제와 조류 인플루엔자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를 계기로 돼지고기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제주의 돼지고기는 전국적인 인지도를 갖고 있는 청정식품이고 문화적 브랜드도 확보하고 있으니, 이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제주의 '도새기 축제'의 경우 돼지 몰기란 단순한 행사와 평소보다 비싼 돼지고기 음식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를 탈피하여 축제를 성공하는 방식은 스토리텔링의 도입과 전통 돼지고기 요리법의 적용이라 하겠다. 제주에는 돛제(豚祭)와 관련된 다양한 신화가 있는데, 미식신(米食神)과 경쟁관계에 있는 육식신(肉食神)의 스토리를 끌어오면 역사와 문화를 풍부하게 담은 축제가 가능하다. 여기에 '가문잔치'를 결합하면 더욱 풍성해질 것이다.

제주에는 전통사회의 결혼 풍습이 아직 그대로 남아 있다. 결혼 전 날, 돼

지를 잡고 결혼식 축하객을 대접하여 온 동네가 축제 분위기에 싸인다. 결혼식 당일에도 잔치를 벌이고, 결혼식 다음날 수고한 마을사람들을 결혼 당사자 식구들이 대접하는 순서까지 사흘 동안 축제가 이어진다. 이런 흥성스런 풍속을 축제로 되살려내면 성공 가능성이 크다. 제주 잔치에서 돼지고기를 나누어주는 '도감'이란 사람이 있다. 돼지고기 전체 부위를 예상되는 손님 숫자에 맞춰 분배하는 일을 하는데, 이런 요소도 축제에 끌어올 수 있을 것이다.

3) 제주 영등 축제

음력 2월 바람이 많은 시기여서 바람을 극복하는 풍속이 생겨났고, 그것이 영등제다. 영등풍신이 내방하는데 그를 잘 대접하여 돌려보내면 풍요가 온다는 풍속인데, 여기서 영등신화를 부르며 영등굿을 한다. 이런 신화와 굿을 현대적 축제로 전환할 수 있다. 물론 여기에 음식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제주 한림의 풍속에 영등제를 준비하는 절차가 있는데, 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축제화할 대안을 제시하였다. 제사 비용을 마련하는 과정, 음식을 장만하는 과정, 나누어 먹는 과정, 굿과 걸궁, 공연을 결합하고 어촌체험을 덧붙인다면 현대적 축제로 각광받을 수 있을 것이다.

4) 이야기 축제 모색(스토리텔링 페스티벌)

미국 테네시주의 소도시인 존스보로에서는 이야기 축제가 열린다. 이 축제를 벤치마킹하여 이야기 전통이 풍부한 제주에 접목시켜 보았고, 성공 가능성도 높다. 여름방학 휴가 기간 제주의 산골 마을에서 제주 신화 들려주기를 시작으로 전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각각 자기 고장의 이야기를 하게 하고, 창작한 이야기, 일상 이야기, 괴담, 시리즈(예를 들어 참새 시리즈)를 돌아가며 구연하도록 하면, 참여자 모두가 이야기꾼이면서 청자가 되는 참여와 소통의 축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7. 문화 지킴이 양성

우리는 지금껏 어떤 제주도를 만들어 왔는가. 국제자유도시를 만들어 왔는데, 거기에는 금융과 무역과 빌딩은 있어도 사람은 없었다. 외국에서 국제 전

문가들이 와서 제주를 무역하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는 하겠지만, 제주 사람을 키우는 계획은 없었다. 요즘 들어 중국의 부동산 중계업자를 유치해 호텔과 리조트 산업을 활성화하려는데, 큰일 날 것이다. 제국주의는 종교를 앞세우지만, 중국은 땅을 소유하면서 지배력을 공고히 한다. 화교가 한국에서 버티지 못했던 교혼을 잘 되새겨야 옳다.

세계자연유산이 된 제주의 환경을 잘 지켜야 한다고 환경수도를 주장하고 있다. 제주의 산과 숲과 용암동굴과 일출봉은 잘 지켜야 한다면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겠다는 슬로건을 본 적이 있는가? 몇 년 전에 ‘칠머리당굿’이 세계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었지만 그 유산을 전승해 온 심방을 중히 여긴 적이 있던가? 세계에 유래가 없는 해녀 물질을 자랑하면서 생태계 파괴와 고통 속에서 해녀 숫자가 현격히 줄어드는 것을 걱정할 적이 있던가? 제주의 전통을 잘 지켜온 사람들을 관심 둔 적이 있던가?

지역학을 연구하는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여 지역 정체성을 찾아 지역문화와 산업을 진흥하고, 나아가 제주학이 풍성하고 다양해지는 길을 제시해야 한다. 남들이 다 하는 교육은 이제 필요 없다. 전문대에 ‘해녀과’를 설치하여 물질문화를 잘 전수해야 한다. 제주만의 기능인 망건과 탕건을 만드는 기술을 전수하기 위해 ‘양태과’를 만들고, 흑룡만리 제주의 돌담 쌓는 기술을 위해 ‘돌담과’를 만들고, 세계적으로 희귀한 곳과 신화를 전수하기 위해 ‘심방과’를 두어야 한다. 승려가 되는 승가학과나 목사가 되는 신학과는 있는데 왜 ‘심방과’는 안 되는가 반성할 일이다. 제주 문화를 전수할 사람을 키워야 제주는 경쟁력을 갖는다.

제주 환경을 잘 지키고 가꿀 수 있는 인재, 제주 문화를 잘 보존하고 새 시대에 맞게 변용할 수 있는 인재, 관광의 마인드를 잘 알아 사람들에게 제주의 따듯한 마음을 전해줄 수 있는 인재, 전통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 시대의 파탄을 치유할 수 있는 인재, 제주 자연의 넉넉함으로 세상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인재를 키워야 한다. 청소를 아주 잘 하는 인재, 나무를 아주 잘 키우는 인재, 농약을 뿌리지 않고도 건강한 먹을거리를 잘 키워내는 인재, 망가진 것을 재활용할 줄 아는 인재, 남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만들 줄 아는 인재가 대접받는 세상이 오면 좋겠다. “1등만 대접받는 더러운 세상”을 청산하면 우리가 바라는 세상이 올 수 있다. 제주 전문가를 키우자.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라는 말은 좀 믿기 어렵지만, “사람만이 희망이다”란 말은 믿을 만하다. 그래서 사람이 먼저다. 21세기 청년실업을 낮추고 취업 일자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희망을 키우는 방법이다. 제주 미래를 위해 사람을 키우자. 이제는 ‘국제자유도시’와 ‘환경수도’를 표방하는 그 본질을 들여다

보자. 결국 도시를 만들겠다는 말 아닌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고 대접하겠다는 말은 바로 우리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는 태도다. 사람이 대접받는 땅을 만들어야 한다. 문화가 살아 숨쉬는 제주, 그 전통을 사람들이 이어나가야, 제주는 살 만한 땅이 될 것이다. 가서 보는 땅(可望)이 아니라 살 만한 땅(可居)을 꿈꾸며, 다시 사람만이 희망이다.

8. 마무리

우리는 서구적 학문들에 매여 있었다. 이제 우리 전통의 학문들을 마련해야 창조학으로 나갈 수 있다. 우리 문화유산을 돌보는 국학이 바로 자립학이다. 서울 중심의 중앙학뿐만 아니라 지방학을 연구의 조건으로 삼아야 제주는 자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간 제주학을 중시하고 지원하는 집중적 노력이 필요하다. 제주는 그 동안 감추어져 있었다. 제주문화는 민족문화를 통섭하는 중요한 방법이 될 것을 확신하다.

미래를 위해서는 문화를 키워야 한다. 문화를 연구하는 학자의 말을 정치인들이 귀 기울여 줄 때 문화가 꽃피게 된다. 독특한 제주의 문화를 지속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학문 후속세대를 키워야 한다. 연구자가 많으면 좋은 성과가 쌓여 다음 세대가 문화로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문화는 미래를 위한 훌륭한 투자다.

제주만의 고유성이 어디에서 오는지 다시 가늠해야 한다. 제주가 지닌 가능성이 무엇인지 궁리해야 한다. 문화 연구가 활성화되면 그것을 찾을 수 있다. 제주에서는 사람들이 마을 신앙을 토대로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인간과 자연을 함께 귀하게 여기는 전통이 만들어져 지속되었다. 미래를 살릴 공동체적 가능성이 제주에 있다. 다른 지역에서는 버린 원시적 고대적 사유가 남아 있어 인간 사유의 궤적을 밝힐 수도 있다. 제주를 연구하면 인류의 삶이 해명된다. 그러니 제주의 정체성을 찾는 일은 후에 인류의 길을 밝힐 중요한 노정이 될 것이다.

제주의 음식 속에 제주의 속살이 있고, 인류의 미래가 있다. 제주의 신화는 가히 세계 제일이다. 제주의 축제는 사람을 살리는 신명풀이가 될 것이다. 제주 곳곳에 담긴 이야기와 노래와 춤과 놀이를 잘 살려 내면 세상이 모두 신명 세상을 살게 될 것이다. 제주 해녀가 지닌 강인한 삶의 능력을 만나면 인간의 위대한 정신문화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는지 알게 될 것이다. 제주문화는 평

화와 공존의 미래 가치를 지니고 있다. 잘 찾아내서 제주의 젊은이들이 정체성을 갖고 당당하게 살도록 일깨우고, 그들이 문화로 밥을 먹고 살 수 있도록 우리 세대가 배려해야 한다. 마지막 기회다. 사라지면 영영 회복할 수 없다. 정치인과 학자가 합동작전을 펼쳐야 할 시기다. **JDI**